



지난 11일 오전 광주 남구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한 노후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에 향아리와 폐 가구 등이 불법 적치돼 있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광주 노후 아파트 8만세대 ‘화재 무방비’

복도에 폐 가구 등 적치물 통행방해
18년전 제조된 소화기 등 시설 미비
“소방시설 보급, 유지·관리 요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11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의 A 아파트.

1985년도에 사용승인된 이 아파트의 계단에는 폐 가구와 향아리, 건조대 등 적치물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복도 한 칸에 놓여있는 소화기는 18년 전인 2005년도에 제조됐으며, 거미줄과 먼지가 쌓여 방치돼 있었다.

복도 벽에 달린 화재경보기는 먼지로 뒤덮이고 부식되면서 제조년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유일한 대피소는 자전거가 빼곡히 주차돼 있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 김 모씨는 “집이 평수가 좁고 현관이 복잡하다 보니 복도에 물건들을 자주 쌓아둔다”며 “화재경보기가 전선이 튀어나오고 방치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 공동주택 중 8만여 세대가 설립

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소방 시설 미비로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 지역에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8만 4,307세대이다.

이러한 노후주택은 대부분 복도나 통로에 불법 적치물이 점령하고 있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계단과 복도 등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 시설과 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일부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관리도 부실하고, 화재경보기도 노후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후된 화재경보기의 경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불이 나지 않았는데 경보음이 나는 사고)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건물에 있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작동 사실을 확인하고 철수했다.

이로 인해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 시

대피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노후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다.

소방법에 따라 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는 2004년 이전에 사업 승인된 주택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2005년 이후 사업 승인된 주택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 때문에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 시설에 대한 보급과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과 캠페인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민찬기 기자

운암산 산불 4ha 소실...부모 자택 방화

주말 광주·전남 사건·사고 열람

주말 광주·전남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부모 자택에 불을 지르는 등 사건·사고로 열람됐다.

12일 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오후 3시 51분께 북구 운암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당국은 진화 헬기 11대와 장비 22대, 대원 928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길은 같은 날 오후 8시 38분께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영향으로 잔불이 다시 살아나며 오후 11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입야 4ha가 소실됐다.

불은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번지며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을 제외하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1일 오후 1시 6분께 전남 나주시 문평면 한 야산 묘지 인근에서 불이 나 5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묘지 주변 입야 0.05ha가 타고 그을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장흥에서도 40대 아들이 부모 자택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아들 A씨(49)는 이날 밤 10시 22분께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부모 자택에 불을 질렀다. 불은 목조로 된 주택 95㎡를 태우는 등 소방 당국 추산 6,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김혜린 기자

배수구 관리 소홀 침수피해...지자체 책임은?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배수구 관리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5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침수 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민사13부는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에 위치한 업체 2곳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북구가 재난방지시설인 배수로

를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며 13억 6,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가 인도 등에서 제조작업을 진행한 풀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배수로 덮개를 개방하지 않아 업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수로를 신속히 개방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나 북구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1 **ONE store**